

제355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8년1월15일(월)

장 소 국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소위원회 구성의 건

상정된 안건

- | | |
|----------------------------|----|
| 1. 위원장 선임의 건 | 1 |
| o 위원장(김재경) 인사 | 2 |
| 2. 간사 선임의 건 | 3 |
| o 간사(이인영·주광덕·김관영) 인사 | 3 |
| 3. 소위원회 구성의 건 | 13 |

(10시0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안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특별위원님들, 바쁘실 텐데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355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헌법개정 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안상수 위원입니다.

국회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는 관계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우리 위원회의 첫 회의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국민으로부터 나온 개헌 동력이 국회의 논의를 거쳐 개헌으로 완성되고 선거제도 개선 등 정치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입법부 수장이신 국회의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회의장님께서 오늘 회의에 와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

한 후 국회의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6분)

○위원장직무대행 **안상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47조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례는 위원 중에서 추천을 받아 선임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광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안상수** 예, 말씀하시지요.

○**주광덕** 위원 주광덕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 또 훌륭한 분들이 함께 헌법개정및정개특위 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된 점에 대해서 저도 한 일원으로서 동참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국가적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4선의

경륜과 또 여러 가지 헌법에 관한 이해와 정치개혁에 대한 많은 성과를 그동안 나타내 주신 김재경 4선 의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상수** 김재경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재경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재경 위원님이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재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시기 바랍니다.

(안상수 위원장직무대행, 김재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김재경) 인사**

(10시09분)

○**위원장 김재경** 안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여망이 높고 선거제도와 선거구 정비의 필요성 또한 넓은 공감대가 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두 가지 현안을 함께 논의하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먼저 개헌과 관련해서 몇 말씀 드리자면, 원내 제1·2당이 개헌 저지가 가능한 100석 이상을 보유한 상황에서 내용과 주제, 절차에 대한 합의는 개헌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합의는 가장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요구한 헌법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정치권과 대통령은 물론이고 개헌에 관심 있는 모든 세력들은 정치적 합의만이 국민적 여망을 담보할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각자의 입장만 고집해 예고된 불행을 향해 마주 달리는 기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설득하고 양보하는 유연한 자세로 합의를 통한 개헌안을 만들어내야만 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개헌안을 만드는 데 중재 조정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정치 개혁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자

면, 선거제도는 미래 지향적으로 고쳐져야 하고 선거구제는 현실과 형평에 맞아야 합니다.

또한 이 문제는 행정구역 개편 등 큰 국가적 어젠다와도 맞물려 있어서 우리가 성과를 만들어낸다면 국가 운영이 한층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많은 논의를 거치면서도 만족할 성과를 만들어 내지 못한 현안들이라서 마음이 가벼운 출발일 수만은 없지만 위원님들과 함께 이 두 가지 국가 중대사 논의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특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열정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회의에와 주신 존경하는 국회의장님의 인사말씀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세균**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헌정특위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첫 출발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여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특별히 제가 관심이 많은 분야여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헌법 개정과 정치제도 개혁은 국민에 대한 약속이자 국회의 책무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우리 국회는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를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개헌특위는 지난 1년간, 정개특위 또한 4개월여 동안 헌법 개정과 선거제도 개편 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 왔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여야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특위 활동시한이 종료되었고 산통 끝에 통합 특위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야가 통합 특위 구성을 합의한 것은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뜻이 아니라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구체적 성과를 도출해 내자는 취지였습니다.

특히 국회가 헌법 개정을 위해 1년이 넘는 긴 시간을 투여한 것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입니다. 그간 이미 많은 논의와 연구가 축적되어 왔고 이 자리에 계신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난 특위에 참여하신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제헌 70주년을 맞이한 올해 우리 헌정특위가 지난해의 성과와 경험을 토대로 국민이 바라는

옥동자를 순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 선임되신 김재경 위원장님의 리더십 아래 원만하고 신속하게 의사일정이 진행되길 희망합니다.

무엇보다 구체적인 안건을 다루게 될 소위원회의 역할이 막중합니다. 오늘 구성된 헌법개정소위원회가 헌법 조문을 만드는 기초소위 역할을 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정치개혁소위원회 또한 선거제도 개편 등 대결적 정치문화를 청산하고 민심이 선거에 제대로 투영될 수 있는 혁신안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6·13 지방선거가 목전에 다가왔는데 아직도 기초의원을 비롯한 의원 정수를 비롯해서 지방선거와 관련된 정치 개혁안이 국회에서 마련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으로서 국민께 송구하고 매우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6·13 지방선거와 관련된 제도개선은 가장 신속하게 빠른 시간 내에 이 위원회에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국회가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 될 것인지 아니면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할 것인지는 모두 여러분의 어깨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과 역사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토대를 구축해 나가는 데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신년 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김재경 국회의 수장으로서 개헌에 관해 좋은 말씀 해 주신 의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정세균 수고하십시오.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16분)

○위원장 김재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50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각 교섭단체 별로 간사 1인을 호선하여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

도록 돼 있습니다.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인영 위원을, 자유한국당에서는 주광덕 위원을, 국민의당에서는 김관영 위원을 각각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세 분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간사(이인영·주광덕·김관영) 인사

○위원장 김재경 그러면 새로 선임된 간사님들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간사께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이인영 위원입니다.

우리 헌정특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가의 중대한 일들을 함께 계획하고 또 논의할 수 있게 되어서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김재경 위원장님을 비롯해 주광덕 위원님 그리고 김관영 위원님과 함께 여러 위원님들을 충실하게 서포트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다음은 자유한국당 주광덕 간사께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광덕 위원 부족함이 많은 저를 국회 헌정특위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국민의 여망을 잘 담아서 제대로 된 헌법개정안 그리고 정치개혁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1야당의 간사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여당 위원님들 그리고 또 국민의당과 비교섭단체 위원님의 고귀한 말씀들을 최대한 담아내서 잘 조정하고 좋은 개헌안과 좋은 정치개혁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끝으로 국민의당 김관영 간사께서 인사하시겠습니다.

○김관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관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위

원님들을 모시고 30년 된 헌법을 개정하는 문제 또 선거법 개정을 이번 특위에서 꼭 해내야 한다는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현시점에서 개헌의 필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일정과 관련해서 지난 대선 때 국민께 한 공약을 감안해서 자유한국당에서 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민주당 역시 지난 주 대통령의 권력구조 발언을 가이드라인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의사를 종합해서 맨바닥에서 논의해 주시고 개헌의 주체가 국민과 국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치개혁소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이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미 시한을 넘겨서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광역의원 선거구제 개편 문제, 하루빨리 종결되도록 저희가 서둘러야 되겠습니다. 특위 기간 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협조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우리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세 분 간사님들 앞으로 큰 역할을 기대합니다.

세 분 간사님들, 잠깐만 위원장석으로 와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간사와 협의)

다음은, 우리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첫 회의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서로 인사하시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평창올림픽지원특위가 아마 같은 시간대에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영철 위원께서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김성태 위원님 또 김상희 위원님, 이런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철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철 위원 자유한국당의 황영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원래 오늘 평창동계올림픽특별위원회 회의를 10시에 하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먼저 잡았는데, 이 특위가 추후에 잡혀서 그래도 시간을 잘 조정해 드리는 게 좋겠다

해서 평창특위를 10시 반으로 좀 미뤄 놓았습니다. 그래서 짧게 인사를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참석해서 일하게 된 것이 무척 영광스럽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김재경 위원장님을 모시고 특위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작금의 시점을 고려한 짧은 정치공학적인 이해관계로 이 특위의 소임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우리 특위 위원들은 국민들로부터 뼈아픈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오로지 우리 국회와 이 자리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입장에서 주어진 소임을 다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저 역시 참고 인내하고 타협하고 설득하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예, 그러면 김상희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위원 김상희입니다.

김재경 위원장님 모시고 또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헌정특위에 참여하게 된 것이 굉장히 영광스럽지만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오늘 참여하는데도 상당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20대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 큰 획을 긋는 그런 중요한 시점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도 겪고 또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그런 책무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 대한민국이 다시 출발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하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원하는 국회 그리고 정치개혁을 위해서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국민들의 강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 20대 국회에서 이 국민의 명령에 응답하지 못한다고 하면 정말 20대 국회뿐만이 아니라 정치권은 국민으로부터 강한 질책과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렵지만 그래도 여야가 그리고 각 정당 간의 합의를 통해서 새로운 헌법과 새로운 선거제도 속에서 대한민국이 크게 한걸음 더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들 함께 고생하시면서 좋은

성과 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다음은 김성태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泰 위원** 자유한국당 김성태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해부터 1차 헌법개정특위에 계속 참여해 온 위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난해 1차 개헌특위에서도 우리가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못 냈다는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를 반성을 해 보면 우리가 너무 많은 부분을 한꺼번에 논의를 벌여 놓고 한 것이 아닌가……

제가 최초에 주장했던 내용은, 지난해 헌법개정특위에서 두 트랙 개헌 논의를 주장을 했고 우리가 개헌 논의를 시작한 단초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국민의 입장에서 돌아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대 대통령들의 한결같은 불행한 결말을 포함하여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인해서 개헌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 제일 우선적인 논의 없이는 우리 개헌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할 것이다, 그 나머지는 다시 두 번째 트랙으로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지방분권이나 국민 기본권 확대, 이 문제는 같이 이렇게 두 트랙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나서서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우리가 헌법상 국가의 대표기관인,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주도의 개헌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이렇게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특히 개헌특위 또 여러 가지 새로운 정치개혁특위가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는 만큼 우리 특위에서 이러한 문제가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논의된 것을 좀 더 집중해서 제왕적 대통령 폐해 극복을 위한 그러한 논의 쪽으로 보다 집중을 해서 먼저 국민이 원하는 개헌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다음은 김종민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 더불어민주당 논산·계룡·금산 지역의 김종민입니다.

오늘 김재경 위원장님과 선배 위원님들 모시고 헌정특위에 참여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지난 1년 좀 넘게 개헌특위에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일단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들을 주셨는데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정말 헌정 개혁에 대한 각자의 소신들이 귀담아들을 내용들이 많다는 생각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정당과 정당 간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예민하게 부딪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각자의 소신과 또 정당의 이해관계를 다 종합해서 하나의 합의를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지금 헌정 개혁을 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저출산, 저성장 또는 저평등의 신 3저의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이 헌정 개혁의 성패는 단순히 정치권의 관심일 뿐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지금까지 각자의 소신과 생각, 무엇이 옳다 또 무엇이 유리하다, 무엇이 이익이다 이런 검토들은 그동안에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을 합의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합의는 대통령이나 아니면 당 지도부가 합의하기 이전에 일단 여기 계시는 스물다섯 분의 헌정특위 위원님들께서 합의를 만들어 내면 대한민국은 한발 앞으로 간다 이런 각오로 합의를 만들어 내는 데 우리 지혜와 용기가 작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다음은 김진태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진태 위원입니다.

저를 굉장히 초강경파로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진 특위가 그러면 앞으로 다음 달까지만 하는 겁니까? 겨우 한 달 반이요? 너무 짧은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적어도 6월까지는 하기로 우리 연말에 3당 간에 다 합의됐던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갑자기 대통령께서 2월까지 답안을 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좀 너

무 나가는 거다…… 꼭 제가 항의를 하는 것을 넘어서서 정세균 의장께서 이것은 항의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선거하고 같이 하는 게 좋지 않냐? 우리가 모여서 논의하는 것은 지방선거보다 한 150배 정도는 중요한 일이다, 그게 핑계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보장해 주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경** 다음은 박병석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 민주당 대전서갑의 박병석 위원입니다.

개헌은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적 요구입니다. 적어도 한 세대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과 각오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고려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선거법, 특히 선거법 개정의 문제는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법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는 기득권을 버려야 된다는 각오가 없이는 합의에 이르기가 어려울 겁니다.

개헌, 선거법 개정, 모두가 역사와 국민에게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다음은 나경원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위원** 제가 주말에 영화 ‘1987’을 보았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민주화 과정, 직선제 개헌을 쟁취한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했고 저는 그 30년 이후 2017년, 작년에 우리 헌정사상 유례없는 조기 대선 또 대통령의 탄핵 이러한 역사를 거친 것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2017년의 국민들의 열망은 그동안에 어떤 직선제 개헌으로 쟁취한 대통령제의 문제점에 대한 종식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권력이 사유화되지 않고 제도화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달라, 또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켜 달라, 이것이 저는 2017년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개헌은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권력구조 개편 또 국민주권을 향상하기 위한 기본권 조항의 개선 그리고 헌법 전문의 개정 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국민의 뜻은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종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헌

법개정및정치개혁특위에서 해야 될 일, 개헌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우리 국민들께서 다시는 권력이 사유화되지 않고 제도화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실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께서 주신 신년사는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권력구조 합의가 어려우니 6월 13일 지방선거 맞춰서 개헌하기 위해서 무조건 국민주권 부분만 좀 들여다보자 이런 말씀이셨는데요,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이야기라고 아 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께서 과연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나, 이 국민의 열망을 담는 국민 개헌을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에 이제 ‘국회는 늘 맡겨 놓으면 그냥 시간만 허비했어’ 이런 이야기 듣지 않도록, 우리가 6개월이라는 시간을 받았습니 다. 권력구조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논의 해서 이번에는 개헌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 첨언하고 싶은 것은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거구제 개편을 별도로 논의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조바심들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선거구제라는 것은 권력구조와 조응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통령제는 양당제, 소선거구제로 이어지고 의원 내각제는 다당제, 중·대선거구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리해서 하는 것이 정말 적절 할지에 대한 우려도 말씀을 드리면서, 모쪼록 저희 특위가 정말 성과를 내는 특위가 되기를 기대 해 봅니다.

○**위원장 김재경** 다음은 박완주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주 위원** 충남 천안을의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장님과 야당 위원님 중에 정말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헌법개정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좀 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 셧듯이 20대 그리고 2018년도에 이 자리에 계신 스물다섯 분의 위원님과 제7공화국을 함께 열어 보고 싶습니다.

이미 국민적 개헌에 대해서는 다수의 국민들이, 70%를 넘는 분들이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감하고 이 개헌 논의가 비단 20대에 와서 이루

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19대부터 꾸준히……. 방금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권력구조, 자치분권, 기본권 등에 대해서 19대 내내 논의가 됐었고요. 20대 들어서도 재작년, 2016년도에 특별위원회를 결의해서 17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에 걸쳐서 우리 1기 개헌특위 위원님들이 탄핵이라고 하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도 논의가 축적되고 논의를 상당 부분 진전시켰다고 봅니다.

다만 연말까지 국민과 함께 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많은 부분에서 논의된 부분이 충분히 공유되지 못했다는 지적 일면 동의하지만, 이제 2018년도에는 올해가 제헌 70년이고 지난 87년, 요즘 향간에 많은 공감을 얻고 있는 1987년 체제가 이제 31년차 되는 해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솔직하게는 선택의 문제이고 이 특별위원회가 새로운 것을 연구하기보다는 기존 논의되었던 각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헌법 기초소위의 역할을, 안을 만들어 내는 과정들을 집중적으로 해 나간다면 시간의 문제는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7공화국을 만들어 나가는 데 했으면, 그런 영광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정개특위와 관련해서 3월 2일부터는 6·13 지방선거가 현실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최소한 헌법과 연동된 전반적인 선거법에 대한 논의에 속도를 내야겠지만 최소한으로 우선 2월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는, 그래서 예비후보들이 선거구가 어디인지는 알고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은 또한 국회가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존경하는 간사님들이 위원장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신속하게 분리해서 처리해 나가는 것도 함께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선배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반드시 이번에 지방선거를 통해서 동시 개헌을 하는 노력도 국민들한테는 약속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함께 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다음 안상수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수 위원 우리나라의 백년지대계를 새로 설계할 헌정특위 위원 여러분들, 축하를 드리고 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탄핵 이전에 국회 본회의 발언을 통해서 탄핵이 능사가 아니고 이것을 개헌을 통해서 새로운 국가 운영체제를 만들어서 미래를 새로 설계함으로 해서 이 사태를 승화시키는 것이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국민들의 정서라고 할까요 이런 것은 역시 30년 된 우리 헌법의 제왕적 대통령제가 수명을 다했다, 그 부작용이 결국 이렇게 국가를 불행하게 한다 하는 그런 정서가 공감을 이루었고 그래서 급속하게 개헌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사실 그러면서 당시를 또 회고해 보면 '5월 9일 이전에 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 다. 그러나 그 당시에 민주당은 선거 이후에는 '안 되겠다' 이런 내용의 분위기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저희들이 새로이 헌정특위를 만들어서 우리 개헌에 관한 내용 혹은 정치개혁에 관한 내용을 집약적으로 해 보자 이렇게 돼서 구성이 됐습니다만 대단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다만 대통령께서 연초 말씀을 통해서 우선 합의하기 쉬운 것부터 지자체 때 같이 하고 나머지 합의가 어려운 것, 예를 들자면 권력구조 같은 것은 차후에 할 수도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은 본말이 전도되었을 뿐더러 국민들의 열망을 왜곡해서 이해하거나 말씀하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지금 기본권 문제라든지 자치분권 문제 등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희 당의 입장에서도 이것을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고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권력구조에 대한 새로운 형태를 국민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께서 '권력구조 변화 없는 개헌은 양꼬 없는 찌뽕이다' 이런 요지의 말씀을 하신 걸로 보다가 됐습니다만 저는 그런 의장님의 생각이 있어서 좀 안심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혹시라도 대통령께서 주신 가이드라인으로 서둘러서 하는 움직임이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경계해야 될 일이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시기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 엄중하고 중요한 국가의 틀을 만드는데 지자체 선거도 중요한 것인데 거기다 또 걸다리로 끼쳐 한다는 것은, 일반 국민들의 여론 조사상에 어떻게 나타나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 헌정특별위원회로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일이지 이것을 그냥 걸다리로 해서 넘기는 그런 식의 개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또 존경하는 박완주 위원께서 아까 지자체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주 적절한 지적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것도 검토가 많이 되어 있을 테니까 확정을 해서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박주민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갑 박주민 위원입니다.

김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많이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과 함께 개헌과 정치제도 개혁을 위한 논의를 함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크게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현행 헌법에는 권력이라는 말이 단 한 번 등장합니다. 그 문구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논의를 하는 것도 국민분들이 맡겨 주셨고 위임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진행되는 앞으로의 논의 역시 국민분들만 바라보고 국민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저 또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헌 시기에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탄핵 국면에서 자유한 국당 위원님들은 이미 당시 신속한 개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개헌 이야기를 하시고 작년에 1년 정도 이미 개헌특위에서 의견 수렴이라든지 논의를 거쳤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개헌을 같이 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저희들이 얼마나 집중도 있게 논의를 진행해 나가느냐일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지를 갖고 계신 만큼 집중도가 높게 논의해서 충분히 지방선거 때 개

헌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이종구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 이 엄중한 시기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 여러분들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재경 윤관석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관석 위원 인천 남동을 윤관석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헌정특위의 통합 출발을 매우 뜻깊고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국민의 요망과 또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시대적 과제인 개헌과 선거법 개선을 바라는 민심을 실천하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고 또한 정치권의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국회가 이제 개헌과 정치의 시간이 열렸는데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의 정치권의 약속을 잘 받아서 약속을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통합 헌정특위는 전혀 새롭게 출발한 것이 아니라 지난 1년간 활동해 왔던 개헌특위와 또 지난 하반기부터 활동했던 정개특위를 함께 합쳐서 그 내용을 심화시키고 이제는 결과를 도출하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통합적인 연속적인 특위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무엇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논의의 성과를 베이스로 해서, 기초로 해서 이제는 결과를 국민들에게 보여 드려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논의만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결과를 내지 않는 국회를 어느 국민들이 신뢰를 하겠습니까? 역사의 평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오늘 선출되신 위원장님과 간사님들 모시고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작년에 정개특위의 여당 간사를 했던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여러 가지가 다 시급하겠습니다라는 특별히 6월 13일 날 지방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0대 총선 때도 선거구 획정이 늦어져서 여러 가지 혼란이 현장에서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관련한 선거구 획정과 정수 조정 문제는 무엇에 앞서서 무엇보다 시급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차적으로 논의의 결과를 만들어서 지방선거에 혼란이 없도록 하는 것이 또한 이 통합 특위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을 책임 방기라고 합니다. 그런 책임 방기를 하는 특위가 되지 않도록 저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정중섭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宗燮 위원 먼저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장님 또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들 모시고 특위에 참여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동시에 지난 1년 동안 개헌특위에 참가했던 사람으로서 기대했던 어떤 결과를 이루지 못하고 지난 연말에 개헌특위가 폐쇄가 되고 또 다시 이번 개헌특위를 하느니 마느니 하다가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출범하게 되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깝고 한편으로 부끄럽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저는 70년대부터 80년대, 90년대를 관통을 하면서 우리 사회 우리 국가의 민주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독재나 권위주의 통치라고 하는 것은 국가권력…… 아까 박주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민에게서부터 나오는 그 국가권력이 개인화, 사유화가 되지 않고 제도화를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독재와 권위주의 통치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 제도뿐만 아니라 헌정체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87년 이후에 민주화가 됐지만 이런 국가권력의 개인화 문제는 이것이 제대로 청산이 되지 않고 지금까지도 마찬가지로 국가권력의 제도화는 대단히 미비한 수준에 있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과 같은 이런 제왕적 대통령제 이것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민주화 이후에 우리가 기대했던 경로와는 다르게 모든 역대 정부에서 정부가 모두 실패를 하고 대통령 개인 스스로도 사실은 불행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무엇을 고민해야 될 것인가,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정말 이 시대의 헌정이라고 하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헌정 개혁을 하지 못하면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과 같은 이런 사회 갈등과 정치 갈등이 계속되는 이상은 어떻게 국가 발전의 동력이 생겨날 수 있을까, 저는 참으로 그것이 걱정이 됩니다.

만약에 이번에 대통령께서 정말 개헌의 시기를 그렇게 못 박지 않고 또 내용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지 않고, 만약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 대한민국 대통령제가 근본적으로 문제였다. 그리고 역대 대통령이 모두 다 국가권력을 사유화하려고 하고 개인화하려고 했던 이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청산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불행을 가져왔다. 그래서 내 임기 중에는 정말로 국가권력의 개인화 문제를 국가권력의 제도화로 확실하게 하겠다. 그래서 헌정질서도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만약에 하면 지금 여기 계시는 여당 위원님께서도 정말 소신 있는 발언을 저는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들 특위에서는 좀 더 여당·야당 위원님들께서 정말 정당을 뛰어넘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과연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동시에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또 우리 여당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옛날에 야당에 계실 때 ‘정말 우리나라 대통령제 이것 문제 아니냐’ 심각하게 그 문제를 제기를 하시고 비판을 해 오셨고 또 그러한 비판은 저와 마찬가지로 문제의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침묵하시는지 참 이해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 정치 풍토에서 대통령의 말씀이 계시면 여당 위원들의 운신의 폭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특위에서는 정말로 그것을 좀 뛰어넘어서 한국의 민주화가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또 한국의 법치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렇게 보면 저는 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아무쪼록 우리 특위에서 이번에는 좀 더 생산적인 논의가 있기를 바라구요.

선거구제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지요. 선거구제의 문제는 사실 행정구역 개편 문제하고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지금 있는 지방자치의 전체적인 그림을 어떻게 그려갈 것인가, 또 지방자치단체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주 복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과거 이명박 정부 때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이 우리 사회에 논의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 이 논의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재경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문제도 좀 더 큰 틀에서 보아서 헌정체제, 선거제도, 행정구역 개편, 지방자치 문제의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우리 위원님들의 경륜과 지식이 모

아졌으면 그런 바람을 하고 있고 저 역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정춘숙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숙 위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위원입니다.

먼저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여러 선배님들, 그리고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장님을 모시고 활동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 상반기에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활동했고 하반기에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활동했습니다.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시작하면서 많은 위원님들이 하셨던 인사말과 함께 참가하셨던 전문가들의 헌법 개정에 대한 뜨거운 열망,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한 영광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치열하게 준비했고 수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저는 하반기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 활동하게 되었지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논의되는 과정이 진정 헌법 개정을 왜 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해서 국민들의 뜻을 받들 것인가라는 것보다는 정치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것 같아서 매우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헌정특위에서는 그런 정치적인 논리, 유·불리를 따지는 것에 한계를 두지 말고 정말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의 백년대계를 놓는다는 측면에서 논의하고 함께 하나하나 결론지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대통령께서 아주 특별한 얘기를 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다른 많은 후보들도 함께 얘기했던 부분인데 지금 와서 이렇게 새삼스럽게 논의되어야 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제가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함께 논의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었고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 같은 국회의 모습을 보고 과연 국민들께서 뭐라고 생각하실까 굉장히 두렵습니다.

제가 함께 했던 많은 전문가들이 저한테 막 질타를 하세요, 도대체 너는 거기에 가서 뭐하는 거냐고. 이러한 국민들의 소리를 잘 들어서 되도록 신속하고 되도록 합리적인, 그리고 대한민국의 앞날을 설계할 수 있는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정치 개혁과 관련해서는 선거제도 또 선거구제,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주권재민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대안을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내셔서 함께 국민들의 뜻을 받드는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특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다음은 정태옥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옥 위원**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민이 원하는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다음은 최인호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호 위원** 지난 헌법개정특위에 이어서 헌정특위에 참여하게 되어서 크게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헌정특위 구성 이후 첫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1기 헌법특위와는 달리 오늘 출범하는 헌정특위가 1기보다는 좀 더 창조적인 타협과 합의 속에서 생산적인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첫 회의에 임했는데 첫 회의치고는 상당히 정치 공세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앞날이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의 헌법특위 과정을 되돌아보면 대선 전에 헌법특위 위원장을 역임하셨던 이주영 위원장께서 강력 주장하셨고 또 우리 특위가 받들어서 대선 전에 각 당의 대선후보들을 전원 다 모셔서 헌법과 관련된 말씀을 들어본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후보들께서 다 이구동성으로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자'라고 국민들께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대선 기간에 했던 국민들에 대한 아주 무거운 약속도 이렇게 합당치 않은 이유로 못 하겠다 하는 마당에 지방선거 이후 뭔가 또 개헌을 하겠다는 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

달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천억 원의 세금 낭비가 우려되고 있고 또 50%의 투표율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 개헌하는 것은 꼭 해야 되고 불가피하다, 또 시간도 아직까지는 충분하다. 지난 1년 동안 국회의 개헌특위가 참으로 많은 논의를 했고 기본권이나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는 사실 합의의 의지만 있으면 다소 모자라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거의 한 달 안에 합의가 가능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합의가 가능한 부분부터 하자는 대통령의 말씀을 너무 정략적으로 해석해서 그것을 마치 반국민적인 개헌,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호도하는 것은 상당히 정치 공세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더더군다나 오늘 자유한국당에서 광화문에서 반국민 개헌 성토를 위한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돌아보면 지난 개헌특위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심도 깊은 논의를 하는 원탁토론을 반대한 것도 사실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또 국민들을 위해서 개헌을 홍보하자는 40억 원의 예산 지출을 반대한 것도 자유한국당이었고요.

‘국민 개헌, 국민 개헌’이라고 주장하시지만 사실 국민여론을 되돌아보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샘플 수가 가장 많았던 대통령선거와 함께 실시되었던 여론조사, 출구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4년 중임제와 5년 단임제를 합치면 거의 70% 가깝게 나왔지 않습니까? 또 신년에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70~80% 가까이 대통령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국민 개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국민의사에 기초한 개헌이어야 하는데 속마음은 내각제하자는 그런 배경을 깔고 자꾸 그렇게 용어상 분권형 대통령제니 뭐니 하면서 사실상 국민여론을 왜곡하는 주장들, 저는 이것이 오히려 반국민적인 개헌의 배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하자는 여론도 압도적으로 70~80%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개헌이라는 주장에 맞는, 국민의사에 기초한 주장이어야 국민들이 설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자꾸 오스트리아식 내각제를 분권형 대통령제의 모델로 하면서 주장하는 속에서 소모적인 논쟁은 앞으로 헌정특위에서는 안 했으면 좋

겠다는 바람입니다.

아시다시피 오스트리아는 대통령을 직선으로 뽑더라도 형식상의 국가원수의 지위만 부여하지 국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사실상 모든 행정권을 다 가지고 행정수반으로서의 역할을 해 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내각제의 변형된 형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제도로 가자는 것이 대선 전 3당의 개헌의 주요한 권력구조안이었습니다. ‘직선으로 뽑되 대통령은 형식상의 국가원수 그리고 국회에서 선출된 총리를 행정수반으로 하자’ 이렇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 의사에 기초하지 않는 사실상의 내각제 주장은 이제 지양하고 국민 의사에 기초한 대통령제 하에서 그러면 대통령의 권한, 행정부의 과도한 권한을 어떻게 분산할 수 있을 것이냐, 인사권의 문제—장관까지 국회의 동의를 받는 문제, 또 예산권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총액은 정하더라도 수정권은 국회에 넘기는 문제, 감사원을 대통령 직속에서 국회의 산하기구 또는 독립기관화하는 문제들 속에서 협치와 분권을 이룰 수 있는 대통령제, 국민의사에 기초한 분권과 협치의 대통령중심제 이런 논의로 가면 충분히 타협도 가능하고 생산적일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새로 출범하는 헌정특위가 너무 정략적으로만 흘러서는 안 되겠다, 생산적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다음은 지상욱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욱 위원 바른정당 지상욱입니다.

막중한 자리에 함께해서 기쁘고 또 무겁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모시고 열심히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논의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특위가 국민에게 올바른 국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와 보니까 역시나 처음부터 많은 의견과 지향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개헌·정치개혁 논의가 ‘내로남불’을 넘어서 ‘남불나행—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는 그런 논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여야는 바뀌었는데 예전에 주장했던 일관성을 잃고 반대의 주장을 하는 그런 모습도 이제 우리는 서로 지양하

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국민만 보고 각인의 위원님들께서 헌법기관으로 국민에 대한 책무를 다한다면 분명히 좋은 합의를 도출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개헌은 우리가 1987년 정치의 민주화를 이룬 이후에, 또 따뜻한 경제를 추구하면서 경제민주화를 차근차근 진행하는 이 와중에 사회적 민주화 차원에서 단순히 권력구조 개편을 뛰어넘어서 국민들이 ‘헌법이나의 삶을 지켜주고 있구나’ 하는 필요를 우리는 반드시 국민에게 충족시켜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제도 개정면도 국민의 뜻이 결론적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결과에 반영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급하거나 그래서 졸속하게 추진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이번에는 21세기를 넘어 22세기까지 함께 이끌어갈 결과가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기존의 논의를 바탕으로 해야만 한다고 해서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논의가 배제되는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국민이 바라는 바대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주승용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승용 위원 전남 여수 출신 주승용 위원입니다.

인사말 한 번 하는 데도 한 시간 가까이 기다려서 하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거꾸로도 나가서 인사말을 먼저 할 수 있게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특위에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 것에 모두가 다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특위에 자원해서 들어왔습니다. 뭔가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들어왔습니다.

개헌 문제는 수십 년 동안 연구해 온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 그리고 서로의 신뢰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대 국회는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킨 정말 안타까운 국회였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대통령 탄핵 때문에 개헌 문제가 대두되었던 것이고, 또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규직의 양보가 있어야 가능하듯이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문제도 1당과 2당의 대폭적인 양

보가 없이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대 국회에서 탄핵과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이루어낸다면 20대 국회가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국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가운데에서 역할을 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개헌 문제는 국회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다, 다 공감하고 있는 문제다, 그러면서도 해결을 못 하는 것이 안 된다, 그래서 국회에서 주도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내야 된다 그렇게 하고.

또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빠진 개헌은 두 번 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권력구조 개편 문제를 포함한 기본권 강화라든지 분권 문제도 반드시 원샷에 같이 개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마지막으로 심상정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정 위원 정의당 심상정입니다.

저는 꼴찌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데 굉장히 익숙한데 주승용 위원님은 아직 많이 불편하신가 봅니다. 그래서 매사에 역지사지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헌정특위의 사명을 확인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고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개헌 논의가 빠진 적이 없습니다. 선거를 정쟁 소재로, 정치의 소재로 삼는 개헌정치는 난무했지만 의지가 실린 개헌은 매우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 우리 국민들의 정치개혁 요구는 매우 직접적이고 그리고 아주 강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의도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말고 국민의 대표로서 시대적 사명을 받아 안으라는 강력한 촉구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용과 관련해서 기본권과 지방분권이 개헌의 핵심 내용입니다. 개헌의 성사 여부를 가르는 쟁점은 역시 권력구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고치자는 얘기인데요.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은 뒤집어 말하면 대한민국 국회의 권한과 책임이 매우 약한 것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이 국회의원은 힘이 센데 국회는 매우 약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국회의 권한과 책임을 어떻

게 높일 것인가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할 수밖에 없고 그 첫 단추가 바로 민심 그대로 의석수가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통해서 국회의 구성 방식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개헌과 선거제도의 성사 여부는 비례성을 강화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총리 국회 추천제를 포함한 대통령의 권한을 과감히 국회에 이관하는 권력 분점의 대타협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큰 원칙이 합의되면 개헌이나 선거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각 정당의 이익 균형 관점에서 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또 논란이 됐는데 개헌의 시기와 절차 문제도 이런 큰 틀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든지 국회에서 합의를 통해서 개헌 시기와 절차도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권한이 크면 그만큼 책임도 크다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위원님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공방거리만 찾지 말고 과감히 한발씩 다가가는 노력을 통해서 헌정특위가 시대적 소임을 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역대급의 최장시간 인사가 끝났습니다. 발언에 가까운 뜨거운 논의를 미리 보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하고도 앞으로 험난할 것이라는 예감도 해 봅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을 보좌할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공식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다음, 정연호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장지원 국회운영위원회 입법심의관입니다.
김태균 행정실장입니다.
(직원 인사)

그 외에도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실 등에서 관련 직원들이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3. 소위원회 구성의 건

(11시16분)

○위원장 김재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 헌법개정소위원회와

정치개혁소위원회,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되, 헌법개정소위원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간사께서, 정치개혁소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당 김관영 간사께서 각각 맡는 것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위원회의 위원 정수 및 위원 선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장과 3당 간사에게 위임하여 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상과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그러면 오늘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위원회의 운영 방향과 일정 등은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여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소위원회 구성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비고
헌법개정 소위원회	김경협 김종민 박병석◎이인영 최인호	더불어민주당(5)	
	金成泰 김재경 김진태 안상수 정종섭	자유한국당(5)	주광덕
	이태규 주승용	국민의당(2)	김관영
	심상정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1)	
정치개혁 소위원회	김상희 박완주 박주민 윤관석 정춘숙	더불어민주당(5)	이인영
	나경원 이종구 정태옥 주광덕 황영철	자유한국당(5)	
	◎김관영	국민의당(1)	
	지상욱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1)	심상정

◎표시는 소위원장임

※ 비고란의 위원은 소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지지 않음

○출석 위원(23인)

김관영	김상희	金成泰	김재경
김종민	김진태	나경원	박병석
박완주	박주민	심상정	안상수
윤관석	이인영	이종구	정종섭
정춘숙	정태욱	주광덕	주승용
지상욱	최인호	황영철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정세균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전문위원	정연호
입법심의관	장지원

【보고사항】

○위원 선임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김경협 김상희 김종민 박병석 박완주 박주민 윤관석 이인영 정춘숙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2018. 1. 11.
金成泰 김재경 김진태 나경원 안상수 이종구 정종섭 정태욱 주광덕 황영철	자유한국당	
김관영 이태규 주승용	국민의당	
심상정 지상욱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